

데스크 시각

닭 한 마리 키우는 데도…



채 희 중
사회2부장

#. 네가 양계(養鷄)를 한다고 들었다. 닭을 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하지만 닭을 기르는 데도 우아한 것과 속된 것, 맑은 것과 탁한 것의 차이가 있다. 진실로 농서를 숙독해서, 좋은 방법을 골라 시험해 보렴. 빛깔에 따라 구분해 보기도 하고, 햇대를 달리 해 보기도 하거라. 닭을 살지도 번드르르게 길러 다른 집보다 번식도 낫게 해야지. 간혹 닭을 관찰해 시(詩)를 짓도록 해라. 이것이 글 읽는 사람의 양계니라. 만약 이익만 따지고 의리는 거들떠보지 않는다면나 기를 줄만 알고 운치는 모른다면…(중략) 못난 사내의 양계인 것이다. 너는 어떤 식으로 하려는지 모르겠구나. 이왕 닭을 기르려면 옛 책에서 닭에 관한 기록을 베껴 모아 목자로 정리하면 좋겠구나.

은펜클럽



서 미 정
광주시의원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입춘이 지난 주말이었다. 겨울이 춥지 않고 눈 소식이 적어서 그런지 계절이 바뀌어 가는 것도 모르고 평범한 주말이었거나 했는데 당일에서야 입춘인지를 깨달았다. 이제 몇 번의 꽃샘추위가 지나면 진짜 봄이 올 것이다. 사람들이 봄을 좋아하는 이유는 겨우내 얼었던 만물이 깨어나기 때문이며, 이번 봄은 자연과 함께 우리 사회도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기에 시민들의 기대는 남다르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5·18광주민주화운동과 87년 6월 항쟁을 통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이 군부독재보다 더 못한 겨울왕국 되어버렸다. 지난 시절이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가 군쿠데타로 정권을 가져갔으니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그 시절 갖은 만행으로 부역을 했던 사람들이 반성은커녕 되레 더 높은 자리

기 고



이 재 진
전남도립대 경찰경호학과 교수

탄핵 정국이자 박근혜 정권의 레임덕(lame duck) 가속화로 경기가 얼어붙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가 바닥으로 치달으면서 지방을 넘어 수도권에서도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이른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용시장의 경우도 경색되고 있다. 2017년 정유년에도 청년실업의 해소는 기대난망으로 앞한다. 기업들이 탄핵정국 이후, 고용과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인공지능기술(AI), 4차 산업혁명, 6차 산업의 연착륙을 목전에 두는 현실에서 기업들은 고용과 투자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게 사회 공헌성을 근거로 내세우며 생산적 투자는 하지 않고 현금 자산만 쌓고 있는나고 항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정약용의 양계(養鷄)

정약용은 ‘양계 편지’를 통해 지식인이 갖춰야 할 두 가지 덕목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그것은 리더십이나 위기관리 또는 상황 판단력 등과 같이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특별한 능력과는 거리가 있다. 국가 경영이나 학문 같이 거창한 목표가 아닌, 양계처럼 소소한(?) 일일지라도 ‘기본 소양’과 ‘열정’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지만 이번 최순실 국정 농단이 밝혀지자 국민들은 또다시 충격과 자괴감에 빠졌다.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 여부를 떠나,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기본 틀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수사하는 특검에 수준 이

입춘에 봄을 생각하며

에 오르고 더 큰소리를 쳐왔다. 국민에게는 고통을 감수하라면서 측근과 가신들에게 국가에 고루 배분되어야 할 이득을 가져가게 하는 농단을 벌였다. 정치 상황은 군부독재시절로 후퇴했지만 철학과 외교, 민생경제 등은 조선시대만큼 후퇴했다. 또 국가 경영에 참여하는 고위직 자리가 최순실을 통해 매관매직되었음이 밝혀졌는데 이는 우리역사 중 어디쯤으로 후퇴된 것인지 궁금하다. 사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도 발뻘만 하는 상류층의 민낯을 보면서 지인의 말이 떠오른다. ‘이만큼 밝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진실과 찿값을 원하는데 끝까지 부인하고 감추는 모습에 부아가 치밀어 이번 겨울은 촛불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무리 추위가 온 세상을 덮어도 봄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알고, 그때가 되면 소복이 쌓인 눈 밑으로 감춰져 있던 것들은 드러날 것이고 새로 갈아엎어질 것이다. 해마다 깊어지는 국민의 의식을 보면 이번 봄에는 무엇인가를 해도 단단히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 그러기에 이번 봄에는 평소보다 더 바쁠 것이다. 먼저는 두터운 겨울을 정리하듯 지금까지 축적된 적폐와 비리, 농단 관련자들을 정리해야 한다. 친일정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모든 문제와 갈등의

시제 제로 시대, ‘온전한 나’로부터 출구를 찾자

설령 기업이 투자를 위해 생산시설을 갖춘다고 한들 기대만큼 일자리가 창출될 리도 만무하다. 특히 인공지능(AI) 부문이 부상함에 따라 적어도 10년 안에 70% 이상의 직업군이 사라진다는 전언에 의하면 우리 시대 안정된 직업군이 유향화될 처지에 놓여 있다. 예컨대 처방전에 따라 약을 지어주는 약사, 뉴스를 팩트(Fact) 위주로 작성하는 신문기자, 일정한 타이프를 지닌 사건을 받아 처리하는 판사·변호사 등도 인공지능으로 처리 가능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우려흐렵기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주인공이 ‘힘들 때 태어나서 거센 풍파를 겪은 게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라서 참 다행이다’는 대사에 공감했던 게 옛것제인데, 이제 또다시 50대 중후반에 접어든 우리 세대가 ‘역풍파’를 맞은 형국이라고나 할까. 하지만 단군 이래 최대의 실업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요즘 세대에 비해 우리 세대는 추억과 낭만이라도 쟁길 수 있었다. ‘민(民)은 이식위천(以食爲天)’이라는 말이 요즘에 먹고 사는 게 삶의 전부였다면, 옛것 세대를 지칭하는 ‘실신시대(失身代)

하의 자세로 대처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뻔뻔함에 국민들은 이제 할 말마저 잃었다. 더 나아가 애초 감념이 안 되는 출알면서도 대권 후보로 내세웠던 여권 정치인들을 같은 부류의 공모자로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을 뽑은 것은 국민이다. 한때 여론조사에서 국정 운영 지지율이 역대 최고일 정도로 지지해 준 이도 국민이었다. 기본이 안 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택해 놓고도,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한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수준이 곧 우리의 수준 아닌가. 질의응답조차 없는 일방적인 기자회견과 제대로 된 토론회 한 번 갖지 않은 불통 대통령을 경제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지지했고, 지역감정에 휩싸여 맹목적인 물의를 던졌고, 품성이나 능력 검증 없이 보수 세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무조건 찍은 결과다. 좋은 대통령 뽑으려면 우리는 세월호 참사와 최순실 국정 농단을 계기로 더 이상 정치를 정치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정치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

근원인 점을 잊지 말고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역사 앞에 뒤틀뒤틀한 계급과 역사를 계속 대장해야만 비로소 고개를 들 수 있는 계급의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건 불가능하다. 비루하게 왜곡된 역사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청산되지 못한 역사, 거짓이 계속 거짓을 부르게 만드느 이 고단한 시대의 패배자는 속죄의 길을 찾지 못하여 계속 비굴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다”라는 목수정 작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두 번째로는 ‘입춘대길 건양대경’의 입춘절을 붙이듯 세계에 우리나라의 정국이 안정되었음을 알리고 꼬일대로 꼬인 외교와 통상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사드 문제와 미·중 사이에서의 등거리 외교 원칙, 소녀상으로 상징화된 위안부 할머니 문제, 국민에게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외교관들에 대한 비리척결과 국제적 위상 되찾기 등 하루아침에 풀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발빠른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몇 번은 더 남았지만 우리가 들었던 촛불과 탄핵이 봄을 맞이하기 위한 대청소였다면 이제 장롱 속에 넣어 두었던 불꽃을 꺼내 입을 준비하듯 지금까지 실행하지 못했던 정책들을 내외야 한다. 이를 위해 대선주자들에게 제안을 하

에 직결돼 있고, 정신적 물질적 삶의 질마저 좌우한다. 정약용은 닭 한 마리 기르는 데도 기초 공부를 해야 하고, 양계에 성공하려면 열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이라면 이제 대통령을 뽑든 국회의원을 뽑든 공부를 해야 한다. 만들어진 홍보물과 공약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직접 후보의 발언을 곱씹어 보며 당사자의 품성과 사회성, 지도자로서의 인식 등을 검증해야 한다. 평소 인터뷰나 저서 등도 뒤져여 봐야 한다. 요즘에는 인터넷만 잘 활용해도 후보들이 각종 행사나 매체에서 했던 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조그만 정성을 기울이면 거짓말을 잘하는지, 약속을 잘 어기는지, 말을 자주 바꾸는지, 실속은 없으면서 겉만 번드르르한지, 반대 세력이 있음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지 등을 구별할 수 있다. 때마침 광주·전남기자협회가 9일 오후 5시 광주YMCA 무진관에서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를 갖는다고 한다. 이제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국가의 주인이자 ‘왕’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chaee@kwangju.co.kr

社 說

정리되는 대선 판도…목표는 정권교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의 대선 경쟁 구도가 점차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김부겸 의원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실질적으로 문재인·안희정·이재명 등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당은 손학규의 국민주권개혁 연대와의 통합으로 역동성 마련의 계기를 잡았다. 여기에 정운찬 전 총리가 조만간 통합 대열에 합류한다면 안철수·손학규·정운찬 등의 3각 경쟁 구도를 통해 대반전의 드라마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치열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야권 주자들의 경쟁과 이들에 대한 검증은 새로운 시대를 위해 필수적이다. 정권 교체와 국민 통합의 길을 여는 촉매제가 돼야 한다.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분열과 반목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정권 교체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만만치 않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흐르는 불신

광주·전남만은 구제역 침범하지 못하도록

최근 전북 정읍에서까지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전남도가 구제역 청정지역 사수를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전남도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광주·제주와 함께 1934년 관측 이래 단 한 번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다.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 주요 사육자인 전남이 구제역 청정지역이 된 데는 우선 지역 내 생산량이 소비량을 넘어서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축산 시장 상황이란 몫을 하고 있다. 타지역에서 유입되는 소·돼지차 적어 가축 질병 감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한 전남은 4면 가운데 서쪽과 남쪽은 바다, 동쪽은 구제역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남과 인접한 환경적 요인도 구제역 청정지역의 명성을 잇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에서까지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제역 및 A1방역대책 재난안전대책본부로

無 等 鼓

시인 고은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체포된 뒤 1980년 5월17일 성남 육군교도소 독방에 수감됐다. 박정희 대통령을 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어 한 방이였다. 이튿날 5·18이 터졌고 학살이 시작됐다. 종신형을 선고 받은 고에게 교도관들은 “광주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너 같은 거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을 흘렸다. 고은은 그 말을 듣고 “내 목숨에 대한 위기감뿐 아니라 광주의 위기를 느꼈다”고 회고했다. 시를 통해 광주 시민들의 삶을 연상시켜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시로 쓴 한민족의 호적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인보는 5·18이 계기가 됐다. 독방에서 구상을 마친 고은은 1986년 1권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30권을 완간했다. 4001편의 시에 등장인물만 5600여 명에 이른다. 27권부터 30권까지 네 권은 주로 5·18과 관련된 인물들을 그리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을 처음 폭로한 고영태 씨 부모도 만인보에 등장한다. 아버지 고규석 편에는 “하필이면/ 5월 21일/ 광주에 불일 보라 가/ 영 돌아올 줄 몰랐지/ 마누라 이숙자가/ 아들딸 다섯

만인보와 5·18

총 맞아/ 거리에 다녔지/~/ 광주교도소 암매장터/ 그 흙구덩이 속에서/ 짓겨진 남편의 썩은 얼굴 나왔지”로 쓰여 있다. 어머니 이숙자 편은 “망월동 묘역관장이 쓴 방이였다. 이튿날 5·18이 터졌고 학살이 시작됐다. 종신형을 선고 받은 고에게 교도관들은 “광주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너 같은 거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을 흘렸다. 고은은 그 말을 듣고 “내 목숨에 대한 위기감뿐 아니라 광주의 위기를 느꼈다”고 회고했다. 시를 통해 광주 시민들의 삶을 연상시켜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시로 쓴 한민족의 호적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인보는 5·18이 계기가 됐다. 독방에서 구상을 마친 고은은 1986년 1권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30권을 완간했다. 4001편의 시에 등장인물만 5600여 명에 이른다. 27권부터 30권까지 네 권은 주로 5·18과 관련된 인물들을 그리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을 처음 폭로한 고영태 씨 부모도 만인보에 등장한다. 아버지 고규석 편에는 “하필이면/ 5월 21일/ 광주에 불일 보라 가/ 영 돌아올 줄 몰랐지/ 마누라 이숙자가/ 아들딸 다섯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지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FAX 222-8005) 기획관리국 (FAX 227-9600) (FAX 227-9500) 지 자 인 실 220-0536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FAX 222-0551) (FAX 222-0195)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